

한국체대의 2022년 : 우리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벌써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말은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체대의 2022년은 어떠했을까.

우리 대학에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살펴보고 내년에는 더 나은 한국체대가 되길 기원해보자.

송유나 기자 202290015@m365.knsu.ac.kr



역도부 코치 폭행사건

수강신청 이슈 및 학사 운영 방식 문제

학생들의 동의없는 새 학기 준비

우리 대학은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2월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본교에서 개강이 다가온 시점까지 학사 운영 방식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지방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서울에 방을 구하지도, 안 구하고 손 놓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강신청 전에 시간표를 짜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사 운영 방식이 중요 변수가 되었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통학 시간, 점심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표를 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강신청 방식을 변경하였다. 특히,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은 졸업에 위해 학점을 채워야 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본교는 작년까지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진행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학년을 구분해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공정한 수강신청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교양 수업이 저학년에서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대응의 첫 불씨

이에 제44대 Withu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생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본교의 늦은 학사 운영 고지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수업방식 및 방역 대책 고지 촉구]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변경된 수강 신청 방식의 주된 피해 층인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강신청 문제 요구안]을 작성해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1학기 비대면 학사 운영을 공지했다. 또한, 4학년 졸업 필수학점 미이수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년까지 추가로 보완책을 유지하고 수강신청 문제로 학생들이 졸업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수업학점팀에서는 졸업 필수학점 미수강자의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현황 파악 요청 및 수강 신청 안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하였다. 그 후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이 대상으로 모두 추가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미수강신청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독려 문자도 발송하여 학생들이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천마 생활관 이슈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 학생들을 옥죄는 공간으로

올해 초반은 천마생활관(한국체대 기숙사)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이 들끓던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방역 수칙이 생기고 제한 사항이 많아지며 천마생활관에 거주하는 체육학과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특히 외출/외박 제한, 기숙사 폐쇄 기준, 확진자 수 미공개, 기숙사 복귀 시 교역의 확인서 제출 등 학생들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역 수칙에 의문을 표했다.

학생들이 만든 요구안, 학생들이 바꾼 매뉴얼

이에 총학과 체육학과 us 학생회(이하 us)는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총학과 us는 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들을 정리해 3월 17일에 열린 제72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본 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요구안이 대부분 통과되었다. 요구안에는 교내 외출 전면 허용, 복귀 시 음성확인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마침내 3월 21일부터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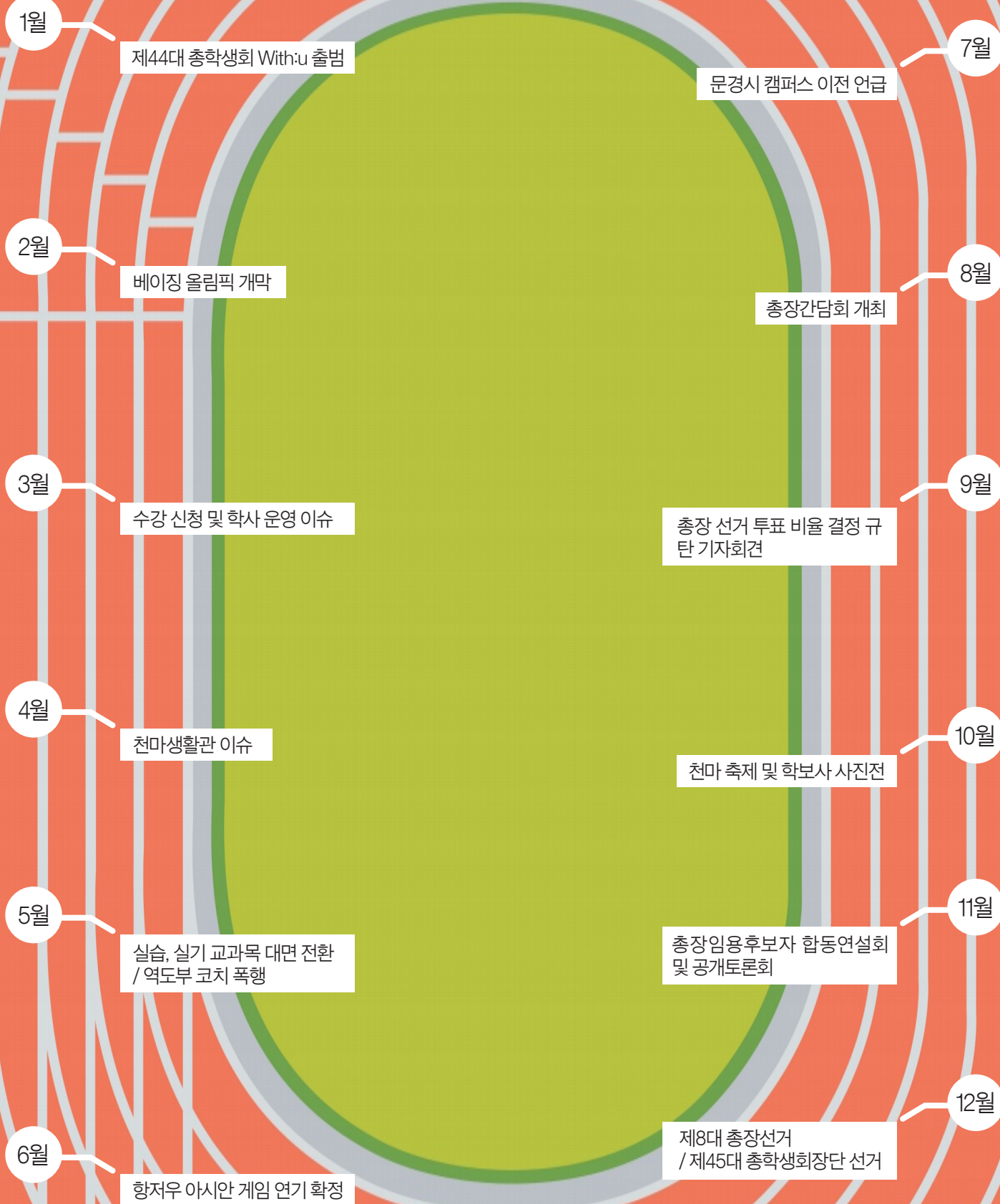
실습/실기 교과목 대면 전환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라고요?

올해 5월은 실기 과목 대면 전환 이슈로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달이었다. 대학 본부는 4월 6일, 일상회복지원단 제1차 회의를 거쳐 실기/실습 교과목의 대면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수업 운영 안내'에 언급된 '대면 전환 조건'에 위배되는 결정이었다.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상회복지원단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구성원 중 학생대표는 1명뿐이었다. 이는 다수결 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입장을 가결하는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갑작스러운 실기/실습 교과목의 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지방 학생들은 당장 한 달을 살기 위해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비대면에 맞춰 짰 시간표 때문에 수업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지는 학생들도 많았다.

갑작스러운 통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총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건한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총학은 4월 13일, 대면 수업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본부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약 일주일 동안 대학 본부의 수업방식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였다. 그 결과 대학 본부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한체대에서 또... 피로 물든 한국체대

지난 5월,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남자 생활관 사람을 맡고 있었던 역도부 코치가 학생들을 집합시켜 1시간이 넘는 열차려를 주고 하키채를 이용해 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키채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저 학생들 군기를 잡는 정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학생 중 한 명이 뇌진탕을 당하고 신체 일부 마비가 오는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선수들이 흘러야 할 건 맘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대학은 폭행 사건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속현범’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

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우리 대학은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은폐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은 폭행당한 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대학 내 폭력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상 한국체대는 체육계 폭력 사각지대에 있다. 대학은 학교체육진흥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 데다, 대학 운동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양쪽과 연관되어있어 폭력 문제 관할 주체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가해 사실 등을 숨길 경우, 향후 가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대학 내 스포츠 폭력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 운동부 업무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체대 캠퍼스 문경이전 논란

마른하늘에 날벼락

우리 대학은 올해 문경 캠퍼스 이전 논란으로 많은 학내 구성원의 걱정을 낳았다. 현 문경 시장인 신현국 시장(이하 신 시장)은 당선 공약으로 한국체대 유치를 내걸었다. 이후 신 시장은 문경 시장에 당선되며 한국체대의 문경 캠퍼스 이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캠퍼스가 이전될 시 대학 인프라 문제, 거주 문제 등 학내 구성원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캠퍼스 이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과 상의되지 않은 캠퍼스 이전 주장과 이를 구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되었고,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00년 후에도 한국체대는 이 자리에

이와 관련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문경 캠퍼스 이전 논란을 조명했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문경 캠퍼스 이전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290명 중 96%(279명)가 캠퍼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문경 캠퍼스 이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번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도 모든 후보자가 문경 캠퍼스 이전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월 1일 투표 결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된 문원재 교수 역시 문경 캠퍼스 이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문원재 교수는 “한국체대를 올림픽공원과 함께 올림픽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습/실기 교과목 대면 전환

학교에서 학생은 찬밥신세

9월 8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국체대) 정문에서는 총장 선거 투표 비율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해, 학생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개정되며 학생 집단행동이 가능해졌다. 본 기자회견은 한국체대의 역사적인 첫 공동 대응이었다. 우리 대학은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이 개정되기 전, 학생투표 비율은 5%에 그쳤다. 이는 학생 500표와 교수 1표가 동일한 비율이다. 총장 선거에 있어서 학생의 영향력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이었다. 이에 총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본부에 총장 선거 투표 비율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

결국, 우리는 학생투표 비율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선거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 투표 비율은 이전에 비해 높아진 9%로 확정되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원하던 33%(교원, 교직원, 학생 모두 평등한 비율)는 아니었다.(한국체육대학교보 264호 2면 참고) 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체로도 큰 성과를 이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생각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는다

우리 대학의 2022년은 학교와 학생 사이 소통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소통에 대한 비전을 내놓았을 정도로 소통은 이제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배움을 발견한다. 우리 대학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바로 지금, 소통을 향해 꿈틀대고 있는 단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더 의미가 있다. 이제 불통의 한국체대는 없다. 한국체대 하면 소통의 대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이다.